

태동서원(泰東書院)창건식



태동서원 창건식에서 유림들이 추연 권운현 선생에게 제사드리기에 앞서 서원의 사당인 숭덕사(崇德祠) 앞에서 예를 갖추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태암산을 동으로 하고 시내와 탁 트인 들판을 품고 있는 경남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에 태동서원(泰東書院)의 봉안공유제가 열렸다.

태동서원은 한학자 추연(秋淵) 권운현(權龍鉉·1899~1988)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후학들이 뜻을 모아 창건한 서원이다. 공은 북아공파 유제자였다.

서원 창건식은 위패를 봉안하는 데서 시작한다. 서원의 사당인 숭덕사(崇德祠)에는 秋淵權先生(추연 권선생)'이라 쓴 위패가 있다. 추연 권운현 선생은 기호학파의 태두인 율곡 이이와 우암 송시열의 학맥을 이어 발전시킨 근세 유림의 대학자이다. 생전에 '이 시대 마지막 선비'라고 불렸던 추연은 시류를 따르라는 주위의 권고에 "죽을지언정 다른 뜻을 가지 않겠다"며 전통 유학자의 길을 고집했다. 추연 선생은 평생을 은거하며 학문에 전념했으며, 말년에는 후학들이 마련해준 태동서사에서 수많은



승경당에서 제례에 앞서 분청하고 있다.



태동서원 전경(합천군 초계면 유하리)

동정공파종회 정기총회

동정공파종회(회장 권도혁)는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안동시 옥정동 안동회관 3층에서 파족 7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태홍 총무부장의 사회로 권도혁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태인 씨의 축사가 있었다. 권중우 감사의 감사보고,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와 안동경안고 이필근 음악교사로 부터 권문의 노래를 연습했으며 권태인씨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동정공파종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권도혁 회장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

정조공파종회(회장 권기용)는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정조공파종회 사무실에서 파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권기용 회장의 인사말에 있었으며 권순복 감사의 감사 보고,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켰으며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쳤다. <권혁세 기자>



정조공파종회 정기총회에서 권기용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참의공 종친회 제9차 정기총회

참의공종친회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 가일종택에서 후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대경 총무의 사회로 권오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임원개선에 들어가

새 회장에 권대직씨가 선출되어 신임인사가 있었으며 기타토의로 회의를 마쳤다. 다음 칙사대회를 하면서 족친간에 족의를 더욱더 두텁게 하였으며 이날 서울, 대구, 포항, 문경, 예천, 상주, 안동 등에 후손들이 참석했다. <권혁세 기자>

참의공종친회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1시,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 가일종택에서 후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권대경 총무의 사회로 권오연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총무의 경과, 결산보고,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이어서 임원개선에 들어가

壬亂義士 松軒公(諱 如精) 春享祭 奉行



포항시 남구 매송면 장동리(토정리) 송원공 묘소에서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지난 4월7일 경북 포항시 남구 매송면 장동리(토정리) 송원공(松軒公)의 묘소에서 원근의 후손 및 지방 유림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춘향제를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송원공(諱 汝精 : 좌윤공파 23세)은 명종22년(1567년) 2월 25일 南面勿齋에서 출생하였으며, 선조25년(1592)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항중의 여러 선비들과 의병을 일으켜 경주 문천, 안강, 팔공산, 문경

당교, 창녕 화왕산, 울산 등의 많은 전투에 참가하여 수 많은 공적을 올렸으나, 論功行賞시에는 모든 공을 사양하고 향리(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동)로 돌아와 도남서당을 열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만년에 學行으로 천거되어 參奉을 지냈었고, 광무5년(1901년) 松軒實記가 간행되었다. 이날의 집사 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權赫大, 아헌관 權宅修, 종헌관 丁元龍, 대축 李鎭號, 집례 權容夏 <포항 권혁두>

譯抄 陵洞實記

역초 능동실기

(지난호 이어)
慶州雲谷祠記事
創建始末

壇壝掘變後京城權門內部單

‘前參判 權應圭 贊政 權在衡 等 辛丑7月日’

정조(正祖) 10년 병오(丙午-서기 1786년)에 경주(慶州)에 사는 자손들이 말하기를 태사공(太師公)의 충의(忠義)는 중국(宗國) 신라(新羅)를 위하는 마음인 것이니 마땅히 신라 고도(故都)에 사당(祠堂)을 세워 그 성의(誠意)를 표하는 것이 옳다 하여, 드디어 경주의 운곡(雲谷)에 추원사(追遠祠)를 건립(建立)하고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와 귀봉(龜峰) 권덕린(權德麟)을 배향(配享)하였다더니 고종(高宗) 무진년(戊辰年-서기 1861년)에 이르러 조정(朝廷)의 명령으로 사당은 철폐되고 신묘년(辛卯年-서기 1891년)에 단(壇)과 돌레의 답을 설치하였다.

덕(德)을 높이고 어진 이를 존경함은 왕정(王政)의 먼저 힘을 바일이요, 정의(正義)를 보호하고 사도(邪道)를 물리침은 도의학문(道義學問)의 근본되는 뜻이라, 만일 이에 위배(違背)하면 사람은 짐승이 되고 중화(中華)는 오랑캐가 될 것이니 어찌 크게 두렵지 아니할까?

정원인(請願人)들의 시조(始祖) 고려태사공(高麗太師公) 휘(諱) 행(幸)은 그 풍성한 공덕과 위대한 업적이 청사(靑史)에 소상히 기재되어 지금까지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입고 있으므로 전조(前朝)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조정(朝廷)에서 숭보(崇報)한 바 그 제전(祭典)은 극진하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안동(安東)의 태사묘(太師廟)는 더욱 그러하였다.

경주(慶州) 운곡(雲谷)에 또한 제사드리는 사당(祠堂)이 있어, 공(公)의 후손인 죽림(竹林)과 귀봉(龜峰) 두 선생을 배향(配享)하였으니 죽림은 곧 단종(端宗)의 충신(忠臣)인 휘(諱-死後의 名) 산해(山海)요, 귀봉은 곧 회재문하(晦齋門下)의 높은 제자인 휘 덕린(德麟)이다. 두 선생의 도의와 학문은 모두

죽(死)히 백대(百代) 후세(後世)에까지 미쳐 의지(意志)가 약한 자는 서게 하고 탐내는 자는 맑게 할 것이므로 일체로 봉향(奉享)하여 길이 일방(一邦)의 존경을 받아 오던 바 급기야 무진년(戊辰年)에 사당을 철폐한 뒤에 곧 그 자리(자리)에 단소(壇所)를 설치하여 신사(紳士)의 경앙(景仰)함과 후손의 참모(瞻慕)함이 오랄수록 더욱 높고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의 중 고산(高山)이라는 자가 불측(不測)한 흉계(凶計)로써 운곡사(雲谷祠)의 기지(基址)가 원래 사찰의 경계라고 거짓 칭하여 시찰(視察)에게 청축(請囑)하여 권의일(權宜一)을 잡아 가두고 만금재산(萬金財產)을 억지하였으니 자 하므로 본손(本孫)과 경내(境內) 사림(士林)들이 연명(連名)하여 부(府)와 군(郡)에 제소(提訴)하여 겨우 지식(知息)하게 되었던 바 급년 봄에 본군(本郡) 불국사(佛國寺) 중 경호(景鎬)라는 자가 또 못된 버릇을 답습하여 탑(塔)이 깨어진 흔적이 있다 하여 가만히 본군 군수(郡守)를 사주(使敎)하여 그 도당(徒黨) 삼인(三人)과 형리(刑吏) 김상구(金商九)를 데리고 동리(洞里) 계곡을 수색하였으나 그 흉계를 이루지 못하며 최후로는 단소를 파헤치는 극악무도(極惡無道)한 괴변(怪變)을 저지르고야 말았으니 경내의 사림들이 본손으로 더불어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장(訴狀)을 안고 관(官)에 들어가려고 한즉 관문(官門)을 굳이 닫고 엄(嚴)히 거절하므로 여러 날을 묵다가 마침내 헛되이

돌아오고 말았으니 가엾다! 말세(末世)를 당하여 우리 도(道)가 날로 위축하여가니 진실로 유식(有識)한 자의 깊이 근심할 바로다. 이제 선현(先賢)을 존봉(尊奉)하는 처소(處所)를 사찰(寺刹)의 경계라고 혼동하여 수백년 뒤에 와서 강제로 점령하고자 하니 중들의 눈에 사림이 없어진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죄일 뿐 아니라 전경(全境)을 파헤쳐 수색하고 의리상(義理上) 경신(敬愼)하여야 할 바를 일찍이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어찌된 극악무도한 행동인가? 본군군수(本郡郡守)로 말하면 그 처음에는 죄없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마침내는 막중(莫重)한 단소를 파헤칠 것을 허가하였으니 같이 배우지 못하고 예절도 모르는 무리를 만일 상부(上部)에서 엄하게 징벌(懲罰)하는 거조(舉措)가 없다면 도의는 다시 유지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은 다시 보전(保全)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에 감히 소리를 같이 하여 청원하오니 통촉(洞觸)하신 후 당해군수(當該郡守) 김윤란(金允蘭)에게는 특히 상당한 징계처분(懲戒處分)을 시행하고 곧 경상북도(慶尙北道) 관찰부(觀察府)에 훈령(訓令)하여 당해(當該) 서기(書記) 김상구와 통도사 중 고산과 불국사 중 경호 등 모든 것들을 엄중히 징벌하여 후일에 일어날 무궁한 폐단(弊端)을 예방하여 주시기를 천만 간절히 비는 바이다.

內部抵慶尙北道觀察府訓令
지금 접수한 전참판(前參判) 권

覺齋先生(諱 參鉉) 春享 奉行



경남 의령 명석정에서 학재 선생(휘 삼현)의 춘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권덕상 부림종친회 고문 및 대구, 의령등지에 각유림 등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18일 오전 11시, 경남의령군 부림면 신반 서동1구 明石亭(명석정)에서 북아공파 35세 覺齋先生(諱 參鉉)의 춘향제를 엄숙히 봉행했다. 이날 집사분정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 남상학(南相學), △집례:이종경(李鐘慶) △축:성재호(成在浩)씨로 제례후 음복례로 모두 마쳤다. <권혁세 기자>

太師廟 管理委員 選任

(태사묘) (관리위원) (선임)

지난 2월 24일 권경장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 6명이 대종원 안동사무소에 모여 현임 태사묘관리위원이 급년 3월 7일자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음 위원을 선임하였다.

새로운 태사묘관리위원 선임을 위한 진지하게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많은 족친이 종사에 참여하는

폭을 넓히기 위하여 4년 이상 연임한 태사묘관리위원은 교체하기로 하였다. 권오국 족친은 4년을 연임하였으나 안동권문을 대표하는 태사묘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신임 태사묘 관리위원으로는 권경용, 기룡, 정창, 경섭 족친을 선임하였다.

태사묘관리위원 각자의 역할 분담은 감사에 권경용, 위원에 권기룡, 정창, 경섭, 사무장에 권오익, 별유사 권기식으로 결정하였다. 신임위원의 임기는 2012. 3. 8-2014. 3. 17이다. 신임장 전달은 시조 춘향 前日 4월 4일 대당회에서 전달했다. <권순갑 사무부총장>

부(府)로부터 특별히 조사관을 정하여 운곡사 유지를 친히 심리(審理)하고 현장을 검증한 후에 그 파헤친 근부 이유와 요점을 밝혀 사실대로 조사하고 소상(昭詳)하게 열거(列記)하여 속히 보고하라. 광무(光武)6년(서기 1903년) 8월 일 내부대신(內部大臣) 이건하(李乾夏) (다음호에 계속)